

하지만 진리의 마음이 비진리의 마음보다 커졌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서 악의 모양을 모두 벗어 버리기까지 늘 인내하며 자신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지키려는 노력을 믿음의 행함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란,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원수 마귀 사단이 가져다주는 갖가지 시험의 때를 말합니다.

'시험의 때가 의미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때는 장차 이 땅에 임할 7년 대환난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더더욱 이러한 시험의 때를 만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만약 적당히 교회만 왔다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세상과 타협한다면 결국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7년 대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할 뿐 아니라,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7년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때가 이르러 공중에 강림하시면 주 안에서 죽은 사

골 빛 가운데 사는 만큼 원수 마귀 사단과 같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도 이런저런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보다' 하면서 수군거리고 헤아리며 판단 정죄하는 사람도 있지요.

물론 하나님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므로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롬 8:28).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시험이 왔다면 이는 축복을 주기 위해 허락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시험당하는 것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에 이른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서 승리한 것이지요. 이 땅에서 받는 잠시 잠깐의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롬 8:18).

3.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믿음을 가졌을

을 만나기 때문입니다(벧후 3:9-10). 따라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속히 오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 3:11)는 것입니다. 앞서 주님께서 두아다라 교회에게도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계 2:25) 하셨는데, 이때에는 단지 믿음이라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신 것은 단순히 구원의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작은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곧 상급을 빼앗기지 말고 꼭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정녕 믿음이 있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중도에 포기해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안일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도 자칫 뜻대가 옮겨질 수 있음을 깨달아 처음 사명 맡았을 때의 열심과 마음가짐을 잃지 않도록 해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욱 변개하지 않고 진리를 행해 결국에는 온전한 성결을 이루며 모든 사명을 충성 되게 감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 주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언약을 주셨다 해도 자신이 그것을 붙잡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실상으로 나타나기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며 승리해 나갈 때 약속하신 면류관과 상급은 물론,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개함이 없으므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신 축복을 결코 빼앗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 하리라" 하시며 영원한 축복을 보장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하시며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축복의 언약을 보장하셨습니다. 주님의 새 이름이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구속 사업을 완성하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 주어진 영광스런 이름입니다(벧 2:9-11).

천국의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처럼 없어질 곳이 아니며 거룩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는 곳으로서, 영원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계 21:1-2).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온전히 성결하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들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는 곳이므로 '영광의 성'이라 부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행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영광의 성 새 예루살렘은 적당한 믿음으로 적당히 충성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온전히 성결을 이루고 생명을 다해 온 집에 충성하는 최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가질 수 있는 것도, 노력만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불같은 연단을 통해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됐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사명도 생명을 다한 충성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비로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변함없이 지킴으로써 온전히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함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곧이어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는 성령이 거두어지고 악의 세력이 주관하는 대환난에 접어들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 그나마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온갖 고문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7년 대환난의 때를 면하려면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며 신부 단장을 해야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닦아 가야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

때부터 인내의 말씀을 지켜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속히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셨지요(계 3:11). 주님께서 속히 임하신다는 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히 임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딘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취되어 왔지요. 주님의 공중 강림이 아니라 해도 사람들은 강건해야 70, 80세인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 '속히 임하라' 말씀하신 주님

야 할 것입니다.

4.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계 3:12). 여기서 '하나님 성전'이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곳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주축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을 배반치

September

새벽 이슬처럼 축축한 은어가 넘치는 9월...
GCN 프로그램으로
가을의 시작을 함께 하세요!

위성 및 인터넷TV안내 **1577-2073**

주요 프로그램 Program

창세기 강해
2011 생명의 말씀(민음을 축약하신)
기관장 교육
특선영화(퀴비츠)

MANMIN tv